

News

코로나 타격받은 개인채무자, 이자상환도 미뤄준다

이데일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혜택과 함께 이자납부도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 금융사 자율결정 방식...업권별로 프리워크아웃 지원조건 협의...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3700곳의 전체 금융사가 동참할 예정

코로나 극복 나선 은행권 2개월간 21조 지원

매일경제

은행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간 약 21조원(18만7,331건)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을 진행 완료 특히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은 지난 9일까지 4,048억원(1만6,097건)이 실행...

코로나에 대기업도 연체 늘었다.. 3월 대출액도 10조 넘어 사상 최대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여파 본격화된 지난 3월 상승 반전...3월 대기업 연체율 0.05%로 2월 보다 0.03% 상승 대기업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른 대출보다도 비교적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며, 상승세도 소폭

대출 들어막던 우리은행, 4월되자 '긱간' 연 이유

머니투데이

지난 8일까지 우리은행 대기업대출 잔액은 18조6,039억원으로 3월 말 잔액 대비 11.9% 늘어... 같은 기간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의 대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이 0%대인 것과 대조적...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심사...빠르면 2분기 안에는 종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변액보험 자산가치 폭락에...보증 준비금 '폭탄'

건설경제

빅3 생보사가 대규모로 변액보증준비금을 적립함에 따라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변액보증준비금 규모는 6,000억원에 육박할 전망 삼성생명은 2,000억원, 한화생명은 2,200억원의 변액보증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교보생명이 적립해야 하는 변액보증준비금은 1,500억원가량

'코로나19에 예적금도 보험도 깬다'...3월 해지액만 11조

연합뉴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5개사의 해지환급금 3월에 3조162억원 주요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올해 들어 1월 2조2천356억원, 2월 2조3천481억원으로 2조원 초반대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3월 29.5%

한은,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허용...이르면 금주 발표

연합뉴스

한은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초안을 정부 측과 공유한 뒤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한은 관계자,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빨리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번주 후반 임시 금통위에서 비상대출 프로그램안을 의결할 가능성

바닥 믿고 美 상장사 베팅...다시 달궈지는 '해외株 직구'

데일리안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잔액은 이달 기준 94억3,800만달러 규모에 육박...지난해 말보다 10억달러 넘게 증가 이른바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개미들이 사상최대 낙폭을 거듭한 미국 증시에서도 동학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